**일어나 나가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장 35-39절>**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려는 노력도 무던히 기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고된 치유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을의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날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새벽에 몸을 일으켜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노력을 별도로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없이 잘 사셨을 것 같은 그분이 그처럼 노력하셨다면, 그보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기도가 힘든 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쓰여진 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힘들어도 해야하는 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최소한 내 할 도리는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다보면 사실 기도할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과연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산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직면하고 넘어서야 할 문제들을 은연중 회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도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기도하지 않고도 최소한 사람 도리는 하고 산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쓰며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소리에 잠이 깬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을 보고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 무언가를 기대하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얼른 가십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좀 의외입니다.

“애들아, 오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는 이를 위해 세상에 온 것이다.”

그 마을에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왜 예수님은 거기서 발길을 돌리기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다시금 분명히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싶은 곳’ 혹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곳’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날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셨다면, 그날 예수님의 일과는 전날과 같이 그 마을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없는 일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들에 가서 하시려는 일도 그 마을에서 전날 하셨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새벽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전날과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직전까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과 ‘가장 좋은 것’,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길’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 사이의 선택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비슷한 선택들이 매번 누적되다보면, 후에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믿음과 소망의 삶입니다.

또한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길’로 덥석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겸손과 인내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참으로 대조적인 이틀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두를 별로 힘들다는 느낌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온 가족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잠시나마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해야할 일들을 꾸역꾸역 해내기는 했지만, 하루종일 버겁고 조급한 느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루를 마칠 즈음에는 완전히 녹초가 된 기분으로 참 힘든 하루였다는 생각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의 차이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끌고다니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로, 교회에서 집사나 교사나 목사나 혹은 사모로, 사회나 직장에서 어떤 책임있는 지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를 찾는 사람들,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있게 반응하며 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로 그 자리에 그 일을 위해 보내셨다는 의식이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수고는 빛이 바래고 말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들을 위해 사람을 택하여 보내십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도 그렇게 보냄을 받으셨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의식 속에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투철한 사명의식 가운데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는다는 뜻입니다.

‘선교’를 의미하는 ‘mission’이라는 영어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missio’에서 온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사역이며,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보냄받은 자리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보냄받은 자리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는 의식이 없이 행해지는 전도는 더이상 선교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일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것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그것은 선교적 삶이 아닙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 의해 내 가정과 직장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삶은 오직 기도의 삶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매일의 기도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늘 새롭게 체험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로 하게 될 일은 어제와 같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 맞게 될 상황들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리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이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을 다시 생활화해 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조용한 기도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멀리 나가시는 것을 보며, 저도 기도를 위한 발걸음에 게으르지 말아야겠다고 또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의 삶을 실천해 가시겠습니까?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시간을 내는 것도 또한 보내는 것도 매우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아빠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시간을 많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루에 한 시간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매일의 기도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매일의 삶을 기도로 열고 주님의 보내심에 늘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의 삶을 노력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저희도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매순간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매일의 삶을 기도로 열고**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